

中, 오염수 분노에 일본산 단속 강화

공급처 바꾸고 불매운동 확산 수입 중단 이어 반일감정 격화 여행사 日 단체관광 취소 쇄도

일본 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된 이후 중국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인한 단속 강화, 공급망 변화 움직임 뿐 아니라 불매운동, 반일 감정도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에 이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을 통해 각 지역에서 모니터링 강도를 높여 식품 생산·경영자가 식품 안전 관련 법률과 수입 식품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감독하기로 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또 아울러 사재기와 품귀 현상이 빚어진 식품 소금의 가격 모니터링에도 박차를 가해 가격의 이상 동향과 매점매석·가격 정보 날조 등 위법 행위 실태를 제때 포착해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국 정부의 단속 강화를 계기로 요식업체들은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8일 중국호텔협회 발표 2021년 해물 요식

업 시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중국의 해산물 요식업 시장 규모는 5581억위안(약 101조 4000억원)이고, 관련 기업은 1만 5000곳 이상이다.

이 시장은 최근까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규모는 연간 7000억 위안(약 127조 2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이 해산물 상당 부분을 수입하던 일본에 금수 조치를 내리면서 요식업체들은 식자재 조달 방식을 바꿔야 할 처지가 됐다.

일식 브랜드 '와사비' 관계자는 "앞으로 해산물 대부분을 프랑스와 뉴질랜드, 미국에서 수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에서 고급 오마카세(주방장 특선 요리)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이번 사건은 중국 본토 식재료 공급망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수 있다"며 "푸젠성과 산둥성, 하이난성 등의 해산물이 모두 대체품이 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 가게는 공급업체 교체를 미리 준비해왔다"고 했다.

일식 음식점들이 '일본산 식재료를 쓰지 않는다'고 공지하는 일도 늘고 있다.

일식 브랜드 '소림(小林) 사시미'는 최근 조개와 새우, 연어 등 식자재가 캐나다나 러시아, 노르웨이, 호주 등에서 오고 성계와 관자는 다련에서

조달한다는 안내를 내걸었다. 또 다른 일본 음식점인 '모다식당'은 최근 "광동요리 판매를 판매 중이고, 모든 일본 재료 사용을 중단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민물고기 소비가 많은 중국의 특성상 담수 양식 산업도 주목받고 있다.

칭하이성에서 양식으로 연간 1000t의 연어를 판매하는 한 업체는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몇 년 동안 생산된 연어 대부분을 수출했지만 올해 들어 90%가량을 중국 내 소비로 돌렸다고 설명했다.

불매 운동과 반일 감정도 고개를 들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독려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특히 일본산 화장품 업체를 정리한 '불매 리스트'가 만들어져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일본 단체여행의 예약 취소 현상도 속출하고 있다.

또 후쿠시마시청과 도쿄 에도가와구의 공공시설 등지에는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전화가 쇄도했다.

기사다 후미오 총리의 친서를 들고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었던 연립 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중국으로부터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방중을 연기했다. /연합뉴스

프랑스 수영장 100개 채울 분량 와인 폐기

가격 폭락 막기 교육지책 폐기 비용만 2870억원 달해

와인 중독국 프랑스가 2870억원을 들여 이미 생산된 와인을 대거 폐기하기로 했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100개 이상을 채울 수 있는 분량이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프랑스가 2억1600만 달러(약 2870억원)를 투입, 와인 약 6600만갤런을 폐기할 예정이라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와인 생산비용이 치솟고 있지만 소비는 하락세를 걸으면서 일부 와인 농가는 이익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6월 프랑스에 와인 폐기 비용으로 1억7200만 달러(약 2280억원)를 지급했고, 프랑스 정부는 최근 추가 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그렇다고 와인을 갈바닥에 버리는 것은 아니다. 와인 생산업체들은 정부 지원금으로 와인을 순수 알코올로 증류해 정소용품이나 향수 등 다른 제품 생산에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마르크 페소 농무장관은

은 지난 25일 기자들에게 "이 자금은 가격 붕괴를 막아 와인 제조업체들이 다시 수입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인이 마시는 와인 양은 1926년 연간 136L로 정점을 찍은 이후 소비자들에게 주어진 음료 선택지가 늘면서 점점 감소해 오늘날 40L에 근접할 만큼 떨어졌다.

최근에는 물가 상승으로 생산비용이 올라가고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면서 상황이 악화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술집과 식당, 와이너리들이 문을 닫은 것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료, 와인 병 등의 생산에 필요한 물품 수급이 어려워지며 와인업체에 또다시 영향을 미쳤다.

실상가상으로 기후변화도 와이너리들을 덮쳤다. 이들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에 대비해 포도 재배와 수확 일정을 조정해야 할 처지다.

프랑스 와인시장을 연구하는 엘리자베스 카터 뉴햄프셔대 정치학 교수는 "프랑스가 잉여분 폐기와 물량 제한에 따른 가격 지지를 타진하는 게 조금도 놀랍지 않다"며 "그들은 19세기부터 와인 과잉생산을 겪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머그샷 상품' 팔아 돈방석... 단숨에 100억원 모금

4번째 기소후 정치자금 기부 물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4번째로 기소되고 '머그샷'까지 찍는 과정에서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단숨에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 2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조지아주(州) 폴턴 카운티 구치소에서 20분간 수감 절차를 밟고 풀려난 이후 현재까지 총 710만달러(약 94억 2000만원)가 모금됐다고 트럼프 선거캠프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특히 전날 하루에만 418만달러(55억 5000만원)이 모여 트럼프 캠프 선거운동을 통틀어 24시간 최고 모금액을 기록했다고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서 촬영된 그의 범죄인 인상착의 기록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이를 새긴 티셔츠, 포스터, 범퍼 스티커, 음료수 쿨러 등을 만들어 온라인 판매에 나섰다.

이들 상품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Never Surrender!)라는 문구가 쓰였으며, 가격은 12~34달러(1만6000~4만5000원) 정도다.

트럼프 캠프 측은 또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다량 발송하며 정치자금 기부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머그샷을 촬영하고 구치소에서 풀려나 뉴저지 베드민스터로 돌아가는 길에 지지자들을 선거운동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트윗을 올렸다.

그가 엑스(X·옛 트위터)로 메시지를 올린 것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상점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머그샷(범죄인 식별 사진)이 인쇄된 티셔츠와 모자가 진열돼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조지아주 폴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해 체포 절차를 밟고 머그샷을 찍었다. /연합뉴스

대선 결과에 불복한 지지자들이 일으킨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연관됐다는 지적으로 계정이 정지됐던 이후 2년 8개월만에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내한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첫 화면에 그의 머그샷이 큼지막하게 걸려있고, "비밀어린 조 바이든을 백악관에서 몰아내고 우리 나라 역사의 어두운 장에서 미국을 구해내기 위해 기부해달라"는 요청이 뜬다.

트럼프 캠프는 2020년 대선 불복 관련 혐의로

기소가 잇따르던 지난 3주간 거의 2000만 달러(256억 4000만원)가 모였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대선에 도전하는 그가 선거운동 초반 7개월간 모금한 금액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다.

폴리티코는 "이런 전격적인 모금 활동은 트럼프가 극성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등 방법으로 네 번 기소당한 것을 선거자금 확보에 활용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저작권 논란에 챗GPT 차단 사이트 증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이 제기되면서 챗GPT의 정보 수집을 차단하는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AI 콘텐츠 정보 제공업체인 오리진리티.에이(Originality.ai)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 1000개 가운데 챗GPT의 정보 수집 툴인 GPT봇(GPTBot)을 차단한 사이트는 9.2%에 달했다.

GPT봇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GPT 언어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새로운 웹 크롤러로, 지난 7일 공개됐다.

오픈AI는 GPT봇을 공개하면서 정보 수집·이용을 원하지 않는 사이트 소유자에게 GPT봇의 크롤링을 차단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GPT봇 공개 후 첫 주인 지난 15일에는 GPT봇 차단율이 5%에 미치지 않았으나, 2주 차에는

10%까지 육박했다. 특히, 인기 있는 주요 사이트 100개로 범위를 좁히면 차단율은 15%에 달해 이용자 수가 많은 사이트일수록 차단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이트 중에는 로이터 통신, 아마존, 뉴욕 타임스, CNN방송 등 주요 기사 사이트가 대거 포함됐다.

로이터 통신의 경우 주요 GPT봇 공개 다음 날인 8일 웹 크롤링을 차단해 주요 100개 사이트 중에는 가장 먼저 정보 수집을 막았다.

이처럼 각 사이트가 GPT봇을 차단하는 것은 자사와 사전 동의 없이 챗GPT가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구글의 경우 지난 5월 NYT와 뉴스콘텐츠 사용료로 3년에 걸쳐 1억 달러(1327억원)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러시아 당국, 프리고진 사망 공식 확인

러시아 당국이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는 이날 "사고 기체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사망자 10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며 "비행기 탑승자 명단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프리고진의 사망을 의심하는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러시아 당국이 유전자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프리고진의 사망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앞서 지난 23일 모스크바에서 서북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러시아 서부 트베리 지역의 쿠젠키노에서 바그너그룹 전용기가 추락해 탑승자 10명 전원이 사망했다.

탑승자 명단에 프리고진이 포함돼 있어 그가 사망했다는 게 기정사실로 됐지만 일각에서는 프리고진이 사고 비행기에 타지 않았을 것이라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항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5090010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